

국내소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
IBA 대상 수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2009 국제 비즈니스대상(IBA)'에서 '올해의 혁신경영자 부문'(Turnaround Executive of the year) 대상(Winner)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비

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할 만큼 권위있는 상으로 전 세계의 기업과 조직들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활동을 5개 부문, 총 131개 분야에 걸쳐 평가·시상하는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분야 국제대회다. 공사 조춘구 사장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과 유연한 조직문화 창달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이자 환경시설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

지난 6월에 확정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경북 구미에서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출범했다. 수질오염 방제센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되며, 4대강 유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상시감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의 방제기능 업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방제센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서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 및 수질TMS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수질오염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시 상황 전파 등 수질오염 원격감시에 주력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수질오염 방제센터가 본격 출범함으로써 4대강 수질오염 사고 예방·감시 등을 통한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4대강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관계자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를 위한 권역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방제에 철저히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DMZ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 발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 중부지역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60여년만인 2008년에 DMZ 서부지역(파주, 연천)을 처음 조사한데 이어 올해는 중부지역인 철원 역곡천 유역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DMZ 중부지역(철원)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역(Corridor)으로서 물, 습지, 산림이 어우러져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습지 식생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식생의 경우 크게 산지식생형과 저지대식생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중부지역에서 조사된 동·식물은 총 450종으로, 서부지역의 348종보다 생물종 다양성이 좀 더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구렁이를 비롯해 묵납자루, 참매, 새매, 샨 등 5종이 발견되었다. 본 조사는 경로가 수색대로 한정되어 동·식물상이 제한적으로 조사되었으나 평야와 산이 혼재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향후 겨울철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범위와 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꿀벌은 진동을 싫어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전북 임실군 국도 확장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건물, 가축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청과 시공사로 하여금 3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전북 임실군에 거주하는 문○○씨 등 46명이 도로공사장 발파공사 등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개발(주), (주)○○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도로 확장공사시 ○○개발(주)와 (주)○○건설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A), (주)○○건설 현장의 발파작업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평가결과 소음은 최고 66dB(A),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배상에서 제외하였지만, 건물피해의 경우 발파시의 진동이 건물의 기존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미친 영향을 고려 평가 진동도가 0.3cm/s 이상인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보수비용에 진동기여율 35%를 적용하여 피해배상액 9백여만원을, 가축피해의 경우 공사 진행시 소음도와 공사시간을 고려 유·사산피해를 인정하고, 성장지연을 및 번식효율 저하율 5%, 휴유장애기간 30일을 적용하여 1천3백여만원을 배상결정 하였다.

특히, 꿀벌의 경우 (주)○○건설의 발파공사가 '08년 10월~'09년 2월까지 동절기에 1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발생된 진동으로 인해 안전한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붕공 피해와 꿀 생산 피해를 모두 인정하여 1천5백여만원을 배상결정 하였다.

양봉 전문가에 따르면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2월하순·3월 초까지 벌집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 월동하며, 외부 진동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풀어질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고 폐사하는 등 정온이 요구되고 있어 소음과 폭발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로공사시 소음·진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전 사전대책 마련 혹은 진행 중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화학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 실시

환경부는 EU REACH의 시행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계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REACH :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U 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정보를 요구하는 REACH가 시행된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화학산업국들도 자국 내 화학물질 규제를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주요 화학제품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계로서는 위해성정보 생산능력 구비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코오롱 등 5개 화학기업의 참여하에, 내년(10년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 물량 1,000톤 이상의 물질 중 4종에 대하여 진행되며, 위해성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한 REACH

등록 완수를 목표로 한다. 또한, 동일한 물질정보가 필요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토록하여, 비용 공동 부담으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된 정보의 신뢰성 검토 및 등록서류 작성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위해성정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향후 사업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업편성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생산된 위해성정보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정보의 요약본은 환경부에 제출되어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본인 국가 화학물질 정보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2009년 최신판 전자지도 작성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 일부에 대해 국토의 변화상(像)을 보여주는 전자지도를 오는 11월부터 인터넷(<http://egis.me.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피복지도(Land Cover Map)로 명명된 이 전자지도는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제작하여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남한 전지역에 대한 2차 갱신 사업중 일부지역이다. 이 지도의 특징은 지표면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기 및 수질, 자연환경, 기후변화 및 기상 등 환경상태와 국토개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한 환경지도이며,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첨단 지리정보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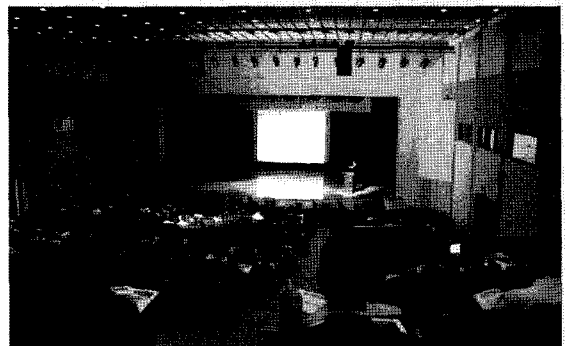
특히 11월에 공개되는 이번 자료는 우리나라의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2호의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그간 외국의 값비싼 영상에 의존하여 왔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순수 국산 위성 영상을 사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자료는 남한 지역을 1:25000 축척으로 중분류한 것으로 2001년 남한전지역에 대한 전자지도가 완성된 후 2007년 1차 갱신 후, 측량법에 따른 3년 주기의 갱신을 위한 2차 갱신의 1차 사업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와 충청북도 일부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지피복지도가 고해상도 위성영상(흑백:1m, 컬러:4m)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국토환경성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 개발사업자 등에게는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연구기관, 학계 등은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폭 넓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4대강 살리기'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존의 중분류(1:25,000)보다 훨씬 정밀한 세분류(1:5,000) 토지피복지도 사업을 2014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워크숍 개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국제경제 질서 형성 움직임에 우리 기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환경 뉴스

위해 지난 9월 29일 코엑스에서「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워크샵」행사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대다수 기업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워크샵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등에 따른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대응전략 및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워크샵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포함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실무·전문교육과 현장기술 지원을 병행하여, Post-2012체제에서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바우처제도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녹색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의류제조판매사인 더베이직하우스(The Basic House)와 기부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바우처 (Voucher) 제도 :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유료로 운영되는 각종 서비스에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유료 자연체험서비스인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참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 첫해는 의류제조판매사인 더베이직하우스가 2300만원을 지원하여 약 600명 정도에게 바우처 제도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단은 내년에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의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신청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한-호주 투자협력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9월 18일 조선훈텔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 시장 등 호주 경제사절단을 초청해 '한-호주 투자협력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캠벨 뉴먼(Campbell Newman) 브리즈번시 시장, 존 에이켄(John Aitken) 브리즈번시 마케팅 대표이사, 마크 브로디(Mark Brodie) 브로디 그룹 회장, 스티븐 콘리(Stephen Conry)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 대표이사 등 호주 경제사절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대성그룹 부회장, 유기주 아주산업 부사장, 김경호 (주)청석엔지니어링 전무이사, 한범석 CJ제일제당 상무, 조장희 LG상사 수석전문위원, 최 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등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벨 뉴먼(Campbell Newman) 브리즈번시 시장은 "브리즈번시는 최근 경제성장, 인구성장 모두 호주 전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라며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을 대표해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경제학부 교수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21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세계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구조 재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속도와 일본의 치밀함 등 양국간의 장점을 살리고 성장 전략을 공유해 중규모 국가의 핸디캡을 보완하면 한일을 아우르는 아시아 선진경제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중개기능이 붕괴됨에 따라 신흥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신지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이같은 변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경우 선진국도 신흥국도 아닌 소국(小國) 개방경제형태로 각종 규제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시장의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조업 대국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발언권이 약하며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만 세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카가와 교수는 국가별 기업 육성 및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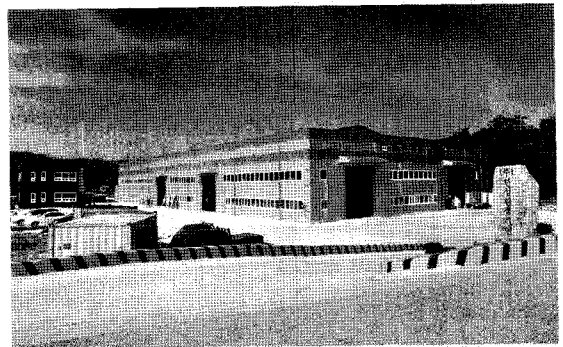
업정책 등 개별 국가적인 시각에 의존했던 과거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양국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형 성장을 이루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중·일·아세안 간의 FTA가 효과는 크지만 한일간의 FTA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만으로도 충분히 양국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회원업체 대표 및 임원 230여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구도와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회원사 소식

(주)한성환경기연 공장 준공



우리협회 회원사인 (주)한성환경기연은 지난 9월 24일 충북 진천에 총 7,750㎡ 부지면적에 공장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주)한성환경기연은 스크린, 무축 스크류 콘베이어, 협잡물 종합처리기, 디스크필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 준공을 통해 환경기자재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